



보도자료

2021.12.19.(일)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담당처 :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원회(구. 청년플랫폼)

담당자 : 홍서운 청년대변인(010-4455-8255)/김기운 상황실장(010-5314-0062)

이재명 후보의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제3차 인선, 워킹맘·도시재생·ESG 분야 청년과 함께 한다

- 분야별 인선에 34세 권아름 씨, 39세 임재현 씨, 37세 최환 씨
- 워킹맘, 도시재생, ESG 등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당사자들 인선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청년선대위)는 오늘(19일) 오전, 분야별 인사 3명 및 대표단 5명을 제3차 인선으로 발표했다. 분야별 3명의 인사는 각각 워킹맘·도시재생·ESG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 문제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로 청년선대위에 합류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권아름(34세)씨는 문화체험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워킹맘이다. 권아름 씨는 “청년 여성들은 임신과 육아의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사회와 경력 단절의 고통에 늘 시달리고 있다”며 “청년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청년선대위에서 활동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청년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소속감을 가지고 다시 사회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얘기했다.

임재현(39세)씨는 사회적기업 ‘에이애피’의 대표이사로, 수년간 도시재생 청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각 지역의 청년 혁신가들과 현장

에서 교류를 해왔다. 임재현 씨는 “지속적인 산업 침체와 저성장, 인구 정체와 지방소멸이라는 의제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성장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를 통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청년선대위 합류에 대한 소감을 남겼다.

이어서 발표된 최환(37세)씨는 지난 9년간 빈집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 시키는 기업 ‘빈집은행’의 대표로 지내왔다. 최환씨는 청년선대위 합류 배경으로 “청년들의 좌절과 상실은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치 밭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년들의 상실을 ESG라는 기회로 채워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동학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인사영입단장은 “청년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로, 선대위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발표된 인사와 함께 ▲홍서윤 수석대변인 ▲김민재 대변인 ▲유민아 대변인 ▲차승연 정책본부장 ▲진민택 조직본부장의 선임도 함께 발표되었다.

(끝)

[이동학 청년선대위 인사영입단장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인사영입단장 이동학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의 세 번째 인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년간 도시재생 청년 공동체 활동을 해오고 현재 사회적 기업 ‘에이애피’ 대표 이사로 지내고 있는 임재현님, 초고령화 시대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빈집은행’의 대표 최환님, 문화체험학원을 운영하며 워킹맘의 처우개선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권아름님, 이상 3분을 청년선대위 분야별 인사로 인선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의 대변인 인선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홍서윤 대변인님이 수석대변인으로 인선되었습니다. 이어 유민아님, 김민재님도 우리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의 대변인으로 새로 합류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의 소식을 보다 발 빠르게 전달하고, 청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 4차 인선도 기대해주시시오. 감사합니다.

[분야별 인선 3인 기자회견문]

○ (워킹맘) 권아름 : / 만 34세

- 메시지 : 저는 아이들을 임신-출산-육아를 하면서 스스로 가진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사회와의 단절, 소속감의 변화, 경력단절로 인해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도 아이들 아빠와 달리 저는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의 손에 아이를 키운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회사와 가정에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는 일은 매일매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들은 임신과 육아의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사회와 경력 단절의 고통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청년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소속감을 가지고 다시 사회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나서겠습니다. 워킹맘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육아여성이 목소리를 내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도시재생) 임재현 : 사회적기업 에이애피 대표이사 / 만 39세

- 메시지 : 지속적인 산업 침체와 저성장, 인구 정체와 지방소멸이라는 의제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성장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눈앞에 청년 그룹의 발굴과 지원, 청년들의 지역 정주와 성장의 기회를 담보할 자원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청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직면한 문제는 전 세대가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겪을 사회적 문제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기에 경제, 문화, 사회, 주거, 교육, 네트워크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발전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혁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지역 현장에서 다년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도시재생 청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각 지역의 청년 혁신가들을 만나 왔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청년 혁신가와의 연대를 통해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찾아가겠습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 (ESG 주거환경) 최 환 : 빈집은행 대표 / 만 37세

- 메시지 :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은 왜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왜 청년들은 집 하나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빈집은 왜이리 많은 것인가요? 저는 9년간 월세 없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른들이 말하는 평범한 집 한 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평범조차 꿈꿀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아파트 공사가 넘쳐납니다. 대체 그건 누구를 위한 집일까요? 청년들은 이제 ‘내집마련’의 꿈조차 꾸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빈집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빈집조차 저에게 허락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희망보다는 좌절과 상실을 먼저 알게 됩니다. 청년들의 좌절과 상실은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청년들의 상실을 ESG라는 기회로 채워 전환하겠습니다. 청년이 주체로 서지 못하고 정책적 도구로 전락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습니다. 청년이 세계적인 흐름에 주도적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경청하겠습니다.

지역의 한 주축으로 서야 하는 주체가 청년입니다. 청년이 정말 미래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말뿐인 청년 정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넘어 국가로, 국가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3차 발표 인선 사진]

				
<p>워킹맘 권아름 (34, 문화예술학원 운영)</p>	<p>도시재생 임재현 (39, '에이엠피' 대표이사)</p>	<p>ESG 최 환 (37, '빈집은행' 대표)</p>	<p>대변인 김민재 (22,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p>	<p>대변인 유민아 (28,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위원회 부대변인)</p>